

# 5·18 계엄군 '전사자' 왜곡...아직도 충혼비 '버젓이'

### 무력진압 3·7·11공수 등 주둔지에 전승기념비적 조형물 세워 충혼비에 6·25 사망자와 함께 행적 기려...국방부 철거 검토 군사 전문가 "5월 광주시민을 아직까지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들이 계엄군 사망자(23명)를 '전사자'로 왜곡하고, 부대 내에 전승 기념비적 인 충혼비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대내외적인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군부대 내 5·18 관련 충혼비 등 조형물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 대변보고를 통해 제출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형물(사료) 처리 방안'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관련 기관 등과 조율을 통해 지난 2월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형물을 전

수조사했다. 국방부는 5·18 당시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20사단, 31사단 등을 전수조사해 5·18 관련 조형물을 파악했다.

그 결과 계엄군 소속 군부대 내 조형물과 전사자 명부 등에 5·18 당시 사망한 부대원을 '광주소요진압시 전사'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군부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대침투작전'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계엄군으로 참가한 7공수여단 주둔지(전북 익산시)에는 5·18 당시 순직한 A중위의 추모비가 설치돼 있으며, 약력에

'80.5.27 광주소요진압시 전사'로 기록돼 있었다.

3공수여단 주둔지(서울 송파구) 내 1998년 건립된 충혼비에도 5·18 당시 사망한 부대원을 '대침투작전'으로 인한 전사로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본부에서 2004년 배부한 전사자 명부에도 5·18 당시 사망자 3명이 '대침투작전' 전사자로 기록돼 있었다.

11공수여단 역시 2008년 건립된 주둔지(담양) 내 충혼비에 5·18 당시 사망자 11명을 일반 순직자와 구분해 '전사자'로 표시했다.

20사단과 31사단 전사자 명부에도 5·18 당시 사망자를 '대침투작전' 전사자로 기록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충혼비에는 6·25 전쟁이나 월남전, 간첩작전 등 사실상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이름을 올린다는 점에서 5·

18때 사망한 계엄군을 기리는 비석은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된 충혼비는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추모하는 비석, 또는 6·25 추모비에 5·18 사망 계엄군 명단을 넣어 제작한 비석 등 여러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 등으로 '순직자'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5·18민중항쟁 때 사망한 군인들은 '전사자'가 될 수 없다. 1980년 6월 국방부는 5·18 사망 계엄군을 포상할 때 공식 공적조서에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분류했다.

한편 국방부는 조만간 5월 단체들과 협의해 전사자 명부 등에 기록된 '대침투작전'을 '5·18민주화운동'으로 수정해 재발간할 계획이다. 사망군인과 관련해서도 소속 부대에 따로 위령비를 설치하고 5·18관

련단체 등과 함께 자유와 화해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다만 5월 단체에서 주장하는 철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파악이 끝나면 광주·5월 단체 등과 협의해 철거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무조건적인 철거 보다는 역사 교육 차원에서 5·18 관련 조형물을 남겨놓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출신의 5·18 연구자는 "충혼비에 5·18 때 사망한 군인과 6·25 사망자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국방부는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여전히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한 현황을 광주시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청취하고, 육군 전사자 명부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카페 등서 상습 행패 부린 전과 44범 '동네조폭'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2일 광주시 서구 일대 카페 등에서 행패를 부린 김모(46)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50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모(여·53)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에 막걸리를 뿌리는 등 1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과 44점인 김씨는 지난달 23일에도 오전 11시20분께 시끄럽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MW를 타고 있던 주모(25)씨 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지인 폭행에 음주운전까지 광주광산경찰, 60대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2일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하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선동 임곡로 삼거리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km 떨어진 광산구 고룡동의 한 농로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면허위소(0.1%)에 2배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낚시를 마신 뒤 지인 1명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BB탄총 탐나서 훔친 40대

평소 서바이벌 게임이 좋아하던 40대 회사원이 수습관원에 달하는 모형 권총(BB탄총)2정 등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0)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 로저용품 판매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5만원 상당의 서바이벌용 모형 권총 2정과 탄창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훔친 장난감 권총의 행방을 묻는 경찰의 추궁에 "다 큰 어른이 아직도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논다"고 아버지가 총을 숨겨줬을 수가 없다"며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진술.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비밀통로 만든 빌라서 주부도박

### 광주북부경찰, 무더기 검거

빌라 3채를 매입해 '비밀통로'를 만들어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10여 명의 주부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일 빌라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이모(여·58)씨를 구속하고, 고스톱 도박을 한 40~60대 주부 12명을 도박혐의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빌라에 탈출구를 연결한 도박장을 개설했으며, 나머지 12명의 주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곳에서 정당 2000원 상당의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7월 4일

빌라 3채(2층 1채, 3층 2채)를 매입해 계단과 배란다를 일부 개조해 탈출로를 포함한 도박장을 만들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용 CC-TV 4대를 설치했다.

이씨는 도박 참여자들이 돈 중 10% 정도를 모아 일정 금액(40여만원)에 도달하면 그금액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식사를 제공하고 심부름 등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카드단말기로 수수료 6%를 받고 일명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원대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한때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을 확인하고 추가 도박 참가자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절기 독감 유행 병원 북적

환절기 B형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2일 광주시 북구의 한 아동병원을 찾은 환자들이다.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돈 챙긴 무허가 소개업자 적발

### 완도해경, 50대 조사

완도해경은 2일 불법으로 외국인 인력을 모집·소개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A(50)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여 동안 완도군 완도를 본인의 의무 매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모집한 뒤, 일손이 필요한 선주와 선장들에게 총 1200차례 정도를 소개해주고 4800여 만원을 챙

긴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대구·서울 등 전국에서 외국인을 소개받아 한명 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도 일손이 필요한 업체 등에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소개한 불법취업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정은호 전남주재총괄본부장

## 공사장 용접 불티 잇단 화재 '주의'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한 야산 자락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헬기 1대, 임차 헬기 1대, 산불 진화 차량과 소방차 각 4대,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이 오후 1시 55분께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했다. 임야 0.05ha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산자락 주택 헛간 신축공사

현장에서 된 용접 불티가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8분께는 무안군 삼향읍 한 주차타워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119소방대가 17분 만에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불티가 가연물질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따는 화재에 소방청도 공사장 용접 작업 불티에 의한 화재 피해가 크며 주의

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2018년 용접 불티로 인해 화재는 1823건에 이르며, 사망자 20명, 부상자 268명 등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용접 불티는 섭씨 1600~3000도 정도의 고온체로, 단열재 등에 붙으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특히 불티는 크기가 작으므로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진다면 본격적인 연소가 일어나기 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전북 등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및 전북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도전북주식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역할을 갖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모분야 및 자격요건

공모직위	직급	모집인원	임 기	자격요건 등
이사	대표이사	1명	3년(연임가능)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사내 이사	생산·관리 분야 1명	3년(연임가능)	
	영업·마케팅 분야 1명			

- 전형절차 공모→서류 및 면접심사→합격자 선정→주총 결의

공모 및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2019. 3. 28(목) ~	서류전형	2019년 4월 중	자체 심사기준
	면접전형	2019년 4월 중	
2019. 4. 16(화) 18:00시 限	합격자 선발	2019년 4월 중	회사 홈페이지 공지
	주총 의결 후 합격자 확정	2019년 5월 중 (예정)	

- 제출서류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 제출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8길11, 완도전북(주) (임원추천위원회)  
나. E-mail : abalonekr0401@naver.com
- 기 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바람

2019년 3월 28일  
완도전북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